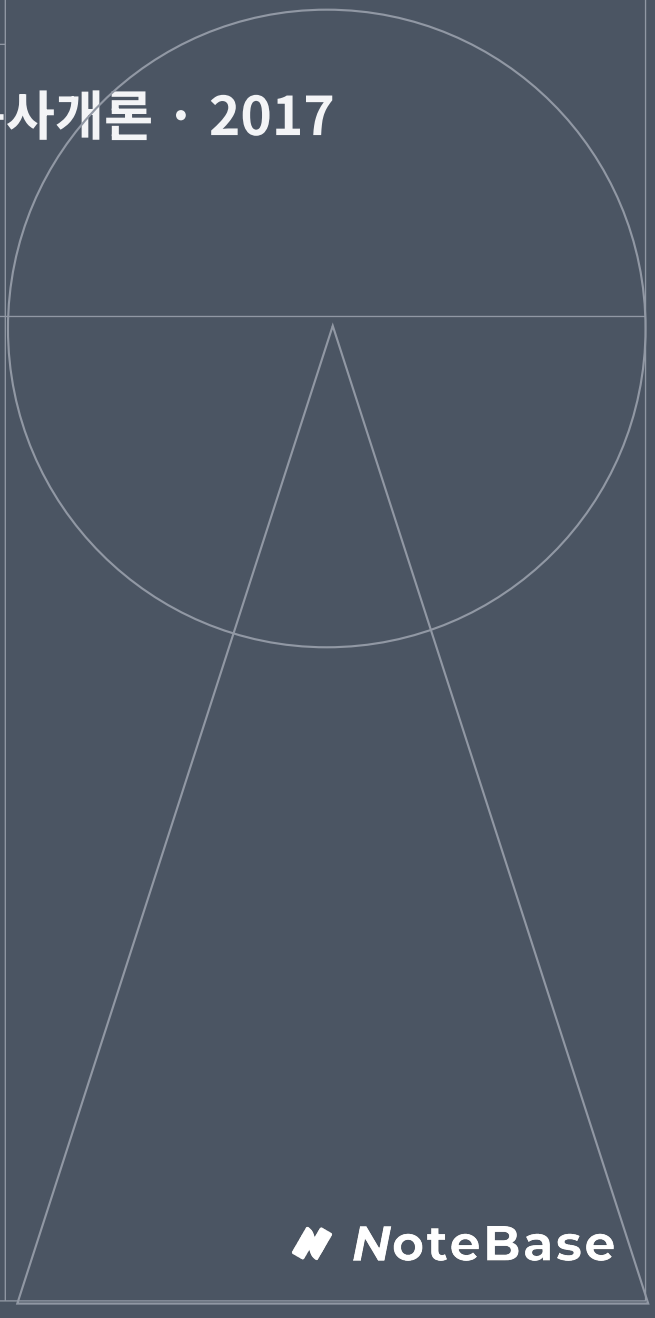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정보봉사개론 · 2017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지방직/9급 · 정보봉사개론 · 2017

**공무원/지방직/9급 · 정보봉사개론 · 2017**

**문 1. 정보서비스의 간접적인 기능으로만 묶은 것은?**

① 정보안내서비스, 정보중재, 맞춤정보서비스

② 정보서비스 평가, 자원파일의 유지, 참고사서의 연수

③ 독자상담서비스, 논문작성 상담, 독서요법

④ 서지정보의 확인, 참고정보원의 개발, 연구협조와 자문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정보서비스 평가, 자원파일의 유지, 참고사서의 연수는 이용자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하기보다 **서비스를 뒷받침할 운영·자원·인력 기반**을 갖추는 활동이므로 간접적인 기능에 해당한다.

**공통 해설**

정보서비스의 직접 기능은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응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지도를 하는 활동이다. 간접 기능은 이러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자료·인력·운영체계를 준비하고 개선**하는 활동이다. 구분 기준은 활동이 이용자의 요구를 직접 해결하는지, 그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지에 있다.

정보서비스 평가는 서비스의 수준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운영을 개선하고, 자원파일의 유지는 서비스에 활용할 정보자원을 정리·관리하며, 참고사서의 연수는 담당자의 지식과 업무능력을 높인다. 따라서 세 활동은 모두 서비스를 지원하는 간접 기능이다.

정보안내서비스·정보중재·맞춤정보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나 정보원을 연결·제공하는 직접 기능이다. 독자상담서비스·논문작성 상담·독서요법도 이용자의 독서나 연구, 개인적 문제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므로 직접 기능이다.

서지정보의 확인은 이용자가 찾는 자료의 서지사항을 확인해 주는 직접 기능이고, 연구협조와 자문 역시 이용자의 연구를 직접 돕는 기능이다. 이들과 함께 제시된 **참고정보원의 개발은 간접 기능**이므로, 이 묶음에는 직접 기능과 간접 기능이 섞여 있다.

NoteBase

**문 2. 협력형 디지털정보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공간의 장애 없이 24/7 서비스가 가능하다.

② QuestionPoint는 OCLC와 ERIC이 공동 개발한 것이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형 디지털정보서비스의 명칭은 ‘사서에게 물어보세요’이다.

④ 유용한 질의응답 내용은 데이터베이스나 FAQ 등으로 구축할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QuestionPoint는 **OCLC와 미국 의회도서관(LC)**이 공동 개발한 협력형 디지털정보서비스이다. ②의 공동 개발 기관인 'ERIC'은 '미국 의회도서관'으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협력형 디지털정보서비스는 여러 도서관이 온라인으로 인력과 정보자원을 공유하여 이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가 도서관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고, 참여 도서관들이 서비스 시간을 분담하면 **하루 24시간, 주 7일(24/7)**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는 모든 참여 도서관이 개별적으로 24시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② X: QuestionPoint의 공동 개발 기관은 **OCLC와 미국 의회도서관(LC)**이다. 'OCLC와 ERIC이 공동 개발'했다는 부분에서 ERIC을 미국 의회도서관으로 고쳐야 한다. QuestionPoint는 도서관들이 온라인 참고질의를 관리하고 협력망 안의 다른 도서관에 질문을 넘겨 답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O: 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형 디지털정보서비스 명칭은 **'사서에게 물어보세요'**이다. 국내 도서관들이 협력하여 이용자의 지식·학술정보 질문에 답하며, 소장자료와 온라인 정보자원 등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O: 유용한 질의응답을 축적하면 **데이터베이스나 FAQ(자주 묻는 질문)**로 구축할 수 있다. 이후 비슷한 질문에 기존 답변을 검색·활용할 수 있으므로, 개별 이용자에게 제공한 답변이 여러 이용자를 위한 공동 정보자원으로 이어진다.

NoteBase

**문 3. 도서관 이용자교육의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서관 및 사서의 서비스 내용을 이해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② 도서관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급단계의 이용자교육이다.

③ 도서관에는 이용자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서가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④ 주제 분야의 깊이 있는 정보탐색에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오리엔테이션은 도서관을 처음 이용하는 사람이 시설과 서비스, 사서의 역할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초급 단계의 안내 교육**이다. ④의 '주제 분야의 깊이 있는 정보탐색'은 **심화된 정보탐색 교육**의 내용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도서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사서가 어떤 도움을 주는지 소개하는 것은 오리엔테이션의 목적에 해당한다.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도움을 요청할 대상**을 알게 하여 도서관 이용을 시작하도록 돕는다.

② O: 오리엔테이션은 도서관을 처음 접하는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 절차, 기본적인 서비스 등을 안내하는 **초급 단계의 이용자교육**이다. 전문적인 탐색기법을 익히기보다 도서관에 친숙해지는 데 중점을 둔다.

③ O: 사서가 정보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안내는 이용자가 도서관을 낯설게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 모르는 점이 있을 때 **사서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돕는다.

④ X: 주제 분야의 깊이 있는 정보탐색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서지교육 등 심화된 이용자교육의 내용이다.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은 **도서관 시설·서비스와 기본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것**으로 고쳐야 한다. 특정 주제의 전문 정보원을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과는 수준과 목적이 다르다.

NoteBase

**문 4. 학위논문 정보를 수록한 정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KIPRIS

② DDOD

③ dCollection

④ PQDT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KIPRIS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 정보**를 검색하는 서비스이다. 학위논문을 수집·제공하는 정보원과는 주된 수록 대상이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X: KIPRIS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의 정보를 검색하는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이다. 이 문항에서 분류하는 학위논문 정보원이 아니라 **산업재산권 정보원**에 해당한다.

② O: DDOD(Digital Dissertations on Demand)는 해외박사학위논문 서비스이다. 북미 상위권 대학의 우수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색인·초록과 원문**을 제공하므로 학위논문 정보원에 해당한다.

③ O: dCollection은 대학에서 생산되는 학술정보를 온라인으로 수집·관리·유통하는 시스템이다. **학위논문의 서지정보와 원문**을 수집하여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학위논문 정보원에 해당한다.

④ O: PQDT(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는 해외 석·박사학위논문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이다. **학위논문의 색인·초록**을 제공하므로 학위논문 정보를 찾는 데 이용할 수 있다.

NoteBase

**문 5.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학술정보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여 종합 목록서비스·상호대차서비스·학술지 원문제공서비스 등의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① KCI

② NDSL

③ RISS

④ NTIS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RISS는 **대학도서관의 학술자료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다. 여러 대학의 소장자료를 검색하고 상호대차와 학술지 원문 이용으로 연결한다.

**공통 해설**

RISS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로, **대학도서관이 보유한 학술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포털이다. 문항의 핵심은 학술정보를 검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대학도서관의 자료를 함께 이용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이다.

종합목록서비스는 여러 도서관의 자료 목록과 소장정보를 모아 원하는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찾게 한다. 상호대차서비스는 소속 도서관에 없는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대출·복사 신청하여 이용하도록 연결한다. 학술지 원문제공서비스는 논문의 목록이나 초록뿐 아니라 본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검색과 자료 이용을 대학도서관 간 공동활용체제로 묶어 제공하는 서비스가 RISS이다.

NoteBase

**문 6. 목록에서 인명이나 단체명·통일표제·주제명 등 각종 명칭을 서지자료의 표목으로 정할 때, 일관성 있게 채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① 시소러스

② 상관색인

③ 전거리스트

④ 분류표목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전거리스트는 인명·단체명·통일표제·주제명 등의 **채택할 표목을 일관되게 정해 둔 목록**이다. 같은 대상의 명칭이 자료마다 달라도 목록에서는 일정한 형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공통 해설**

목록의 표목은 저자명이나 주제명처럼 자료를 찾아 들어가는 접근점이다. 전거리스트는 인명·단체명·통일표제·주제명 등에 대해 **표목으로 사용할 채택형과 다른 표현에서의 참조 관계**를 정리한 목록이다. 이를 근거로 표목을 정하면 같은 대상이 서로 다른 명칭 아래 흩어지는 것을 막고, 목록 작성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저자가 본명과 필명으로 책을 냈다면, 채택할 이름 형식을 정하고 다른 이름에서는 그 형식으로 안내할 수 있다. 이용자가 어느 이름으로 찾더라도 같은 저자의 자료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문항의 핵심인 '각종 명칭을 서지자료의 표목으로 일관성 있게 채택'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전거리스트이다.

NoteBase

**문 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한 문헌에 포함된 내용의 질적, 양적 정보를 비교적 상세하게 축약하여 원문을 읽지 않아도 내용의 요점을 이해할 수 있다.
◯ 원문헌에 있는 중요한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원문헌의 대용물로 제공될 수 있다.

① 지시적 초록
② 비평적 초록
③ 통보적 초록
④ 주제지향적 초록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원문헌의 질적·양적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담아 **원문을 읽지 않고도 요점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통보적 초록의 특징이다. 이처럼 핵심 내용을 전달하므로 원문헌의 대용물로 활용될 수 있다.

**공통 해설**

통보적 초록은 원문헌의 중요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축약하여 전달하는 초록이다. 연구 문헌이라면 목적·방법뿐 아니라 **주요 결과와 결론**도 포함하여, 독자가 연구에서 무엇을 밝혔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제시문은 질적·양적 정보를 담아 원문 없이도 내용의 요점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단순히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문헌이 전달하는 정보 자체를 제공**한다는 뜻이므로 통보적 초록에 해당한다. 원문헌의 대용물이 될 수 있다는 설명도 이러한 정보 제공 기능을 가리킨다.

NoteBase

**문 8. 다음 제시문의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은 특정 개념을 나타내는 어구가 항상 동일한 용어로 색인되므로 검색효율의 (㉡)이 높아진다. 반면 모든 용어를 수록하지 않기 때문에 용어의 (㉢)이 떨어진다.

① ㉠: 자연언어 색인, ㉡: 재현율, ㉢: 특정성

② ㉠: 통제언어 색인, ㉡: 정확률, ㉢: 망라성

③ ㉠: 자연언어 색인, ㉡: 정확률, ㉢: 망라성

④ ㉠: 통제언어 색인, ㉡: 재현율, ㉢: 특정성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같은 개념의 여러 표현을 하나의 색인어로 통일하는 **통제언어 색인**은 표현 차이로 관련 문헌이 누락되는 것을 줄여 **재현율**을 높인다. 다만 세부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가 어휘집에 없으면 더 넓은 용어를 써야 하므로 **특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빈칸별 해설**

㉠ 통제언어 색인: 주제명표나 시소러스 등에서 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문헌의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같은 개념을 뜻하는 동의어나 표현 변형을 **하나의 대표 용어로 통일**하므로 '항상 동일한 용어로 색인'한다는 설명에 해당한다. 자연언어 색인은 문헌 등에 쓰인 표현을 그대로 활용하므로 같은 개념이 서로 다른 용어로 색인될 수 있다.

㉡ 재현율: 전체 적합 문헌 중 검색된 적합 문헌의 비율로, 관련 문헌을 얼마나 빠짐없이 찾아냈는지를 나타낸다. 같은 개념의 문헌을 동일한 용어로 색인하고 그 용어로 검색하면, 표현이 달라 놓치던 문헌도 함께 찾을 수 있어 **관련 문헌의 누락이 줄어든다**. 정확률은 검색된 문헌 중 적합 문헌의 비율이므로, 관련 문헌을 빠짐없이 모으는 효과를 설명하는 이 빈칸에는 재현율이 들어간다.

㉢ 특정성: 색인어가 문헌의 주제 개념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는지를 뜻한다. 제시문처럼 어휘집에 모든 세부 용어를 수록하지 않으면, 어떤 개념에 꼭 맞는 용어 대신 **더 포괄적인 용어로 색인**해야 할 수 있다. 이때 주제의 세밀한 차이를 표현하기 어려워 특정성이 떨어진다. 망라성은 한 문헌의 여러 주제를 얼마나 폭넓게 색인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개별 개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표현하는가와 구별된다.

㉠ 통제언어 색인, ㉡ 재현율, ㉢ 특정성의 연결은 ④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9. 디지털도서관 환경의 통합검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웹 스케일 디스커버리 시스템은 수많은 메타데이터에 대한 단일 색인을 생성하기 위해 출판사, 중개사업자, 통합도서관 시스템, 기관레포지토리 등과 함께 업무를 수행한다.

② 통합DB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OAI-PMH라는 메타데이터 수확 프로토콜 기법을 사용한다.

③ 메타데이터를 통합하지 않는 분산검색(distributed search) 방식은 불가능하다.

④ 탐색질의의 결과는 시스템에 따라 다양한 적합성 요인으로 배열되고 제시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분산검색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메타데이터를 미리 통합하지 않아도** 여러 DB에 질의를 보내고 검색결과를 모아 제시하는 분산검색이 가능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웹 스케일 디스커버리는 여러 정보원의 메타데이터 등을 미리 수집하여 **단일 색인**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출판사·중개사업자로부터 콘텐츠 정보를 제공받고, 통합도서관 시스템의 소장자료 정보나 기관레포지토리의 자료 정보 등을 연계한다.

② O: OAI-PMH는 여러 기관이 공개한 **메타데이터를 수확하는 프로토콜**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각 저장소에서 자료의 제목·저자 등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통합DB를 구축하고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자료 원문 자체를 모두 한곳으로 옮기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③ X: 분산검색은 **각 DB를 별도로 유지한 채** 이용자의 질의를 여러 DB에 보내 검색하고, 돌려받은 결과를 한 화면에서 제공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메타데이터를 사전에 통합한 DB가 없어도 통합검색을 구현할 수 있다. 미리 모은 색인을 검색하는 방식과 검색 시점에 여러 DB에 질의하는 방식을 구분해야 한다.

④ O: 검색결과는 질의와 자료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적합성 요인**에 따라 순위가 매겨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색어의 일치 정도나 검색어가 나타난 필드 등을 고려하며, 어떤 요인에 얼마나 가중치를 주는지는 시스템마다 다를 수 있다.

NoteBase

**문 10. 정보검색의 재현율 향상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형통제 및 동등관계

② 가중치 부여 및 개념의 연결

③ 계층관계 및 연관관계

④ 탐색어 확장 및 용어의 절단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가중치 부여와 개념의 연결은 검색 범위를 넓히기보다 문헌의 중요도와 개념 간 관계를 구별하여 **정확률을 높이는 수단**이다. 재현율은 표현이 다르다는 이유로 빠지는 적합 문헌을 줄여 높인다.

**선지별 해설**

재현율은 전체 적합 문헌 중 실제로 검색된 문헌의 비율이고, 정확률은 검색된 문헌 중 적합 문헌의 비율이다. 재현율을 높이려면 관련 문헌의 누락을 줄이고, 정확률을 높이려면 부적합 문헌이 섞이는 것을 줄여야 한다.

① O: 어형통제는 단수·복수나 어미 변화 등으로 달라진 단어 형태를 통일하여, 같은 개념의 문헌이 형태 차이 때문에 빠지는 것을 막는다. 동등관계는 동의어·유의어와 대표 용어를 연결하여 **서로 다른 표현으로 된 같은 개념의 문헌**도 찾게 하므로 재현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

② X: 가중치 부여는 용어의 중요도를 다르게 반영하여 적합성이 높은 문헌을 우선 제시하는 수단이다. 개념의 연결은 문헌 안에서 어떤 용어들이 서로 연결되는지를 표시하여, 함께 등장했을 뿐인 용어들을 잘못 결합해 검색하는 일을 줄인다. 두 방법은 **재현율이 아니라 정확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분류한다.

③ O: 계층관계는 상위어·하위어 관계를, 연관관계는 동등관계나 계층관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의미상 관련된 용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를 이용해 탐색어를 적절한 상위어·하위어·관련어로 확장하면, 처음 용어만으로는 찾지 못한 문헌도 검색할 수 있다. 즉 **관련 개념으로 탐색 범위를 넓혀** 재현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④ O: 탐색어 확장은 동의어·관련어 등을 추가해 더 많은 적합 문헌을 찾는 방법이다. 용어의 절단은 단어의 일부를 기준으로 그 부분을 공유하는 여러 형태를 함께 검색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미절단으로 'librar' 뒤의 문자를 열어 두면 'library'와 'libraries'를 함께 찾을 수 있어, **표현이나 단어 형태 차이로 인한 누락**을 줄인다.

NoteBase

**문 11. 정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서관의 정보원은 도서관 소장자료 외에 네트워크로 접근 가능한 자원도 포함한다.

② 디지털 환경에서는 2차 정보원을 이용하여 1차 정보원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

③ 명감자료 중 매년 출판되는 자료는 연감정보원으로 구분된다.

④ 규격은 1차 정보원에 해당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색인·초록 같은 2차 정보원은 1차 정보원의 존재와 소재를 알려주는 검색 도구이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검색 결과에서 원문으로 연결**할 수 있어 1차 정보원에 대한 접근을 돕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도서관의 정보원은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활용하는 자원이다. 도서관이 직접 소장한 책이나 잡지뿐 아니라 구독 전자저널, 외부 데이터베이스 등 **네트워크로 접근할 수 있는 자원**도 포함한다.

② X: 1차 정보원은 연구 결과나 사실 등을 직접 기록한 원자료이며, 색인·초록 같은 2차 정보원은 이를 검색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서지정보나 요약을 제공한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검색된 논문의 서지정보에 원문 링크를 연결할 수 있으므로, 2차 정보원은 **1차 정보원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한다**. 예를 들어 초록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논문을 찾은 뒤 원문 링크를 통해 해당 논문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원문 열람에는 구독이나 접근 권한이 필요할 수 있다.

③ O: 명감은 인물·기관·단체 등의 명칭, 주소, 연락처, 활동 등과 관련된 정보를 모아 놓은 자료이다. 이 가운데 정보를 **매년 갱신하여 출판하는 자료**는 연간 현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감정보원으로도 분류한다. 명감이라는 내용상의 성격과 연감이라는 발행·갱신상의 성격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④ O: 규격은 제품·재료·공정 등에 적용할 치수, 품질, 성능, 시험방법 등의 기준을 정한 자료이다. 다른 자료를 찾도록 안내하는 색인·초록과 달리 **기준 자체를 직접 제시**하므로 1차 정보원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2. 색인을 주제색인과 비주제색인으로 구분할 경우, 다음 중 주제색인 작성에 사용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본문 ㄴ. 초록 ㄷ. 저자명
ㄹ. 출판년도 ㅁ. 출판사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ㅁ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주제색인은 문헌의 **내용을 나타내는 개념**을 색인어로 삼으므로, 본문과 초록에서 주제를 파악하여 작성한다.
저자나 발행에 관한 서지사항은 비주제색인의 기준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주제색인은 문헌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주제를 나타내는 색인어를 부여하는 방식이고, 비주제색인은 저자나 발행사항 등 내용 이외의 속성을 검색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ㄱ. 본문 — 주제색인: 문헌이 다루는 내용을 직접 서술한 부분이므로, **주요 개념과 주제**를 파악하여 색인어를 선정하는 데 사용한다.

ㄴ. 초록 — 주제색인: 문헌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것이므로, **내용의 요지**를 통해 주제를 파악하고 색인어를 선정하는 데 사용한다.

ㄷ. 저자명 — 비주제색인: 문헌을 **누가 작성했는지**를 나타내는 서지사항이다. 문헌이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작성자를 기준으로 검색하게 한다.

ㄹ. 출판년도 — 비주제색인: 문헌이 **언제 발행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서지사항이다. 내용의 주제가 아니라 발행 시기를 기준으로 검색하게 한다.

ㅁ. 출판사 — 비주제색인: 문헌을 **어느 기관이 발행했는지**를 나타내는 서지사항이다. 내용의 주제가 아니라 발행 주체를 기준으로 검색하게 한다.

주제색인 작성에 사용하는 것은 본문과 초록인 ㄱ·ㄴ이며, 이 조합은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3. 참고면담에서 고려해야 하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언어
② 감정이입
③ 재진술
④ 경청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의사언어는 억양·음량·말하는 속도처럼 말에 수반되는 **비언어적 음성 요소**이다. 소리로 전달되더라도 단어나 문장의 의미 자체와는 구별된다.

**공통 해설**

참고면담의 언어적 기법은 이용자의 **말에 담긴 내용과 감정을 이해하고 확인**하여 실제 정보요구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경청은 이용자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고, 감정이입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재진술은 이용자가 한 말을 사서가 자신의 말로 다시 표현하여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 문항의 분류에서 세 기법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기법에 해당한다.

의사언어는 말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억양·음량·말하는 속도 등 음성의 전달 방식**을 가리키므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속한다. 예를 들어 같은 '알겠습니다'라는 말도 차분한 목소리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할 때 전달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때 단어의 의미 외에 태도를 전달하는 목소리의 특성이 의사언어이다.

NoteBase

**문 14. 메타데이터의 인코딩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HTML

② XML

③ RDF

④ EPUB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EPUB은 본문·이미지·메타데이터 등을 묶어 배포하는 **전자출판물 파일 형식**이다. 내부에 메타데이터를 포함하지만, EPUB 자체를 메타데이터의 인코딩 방식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선지별 해설**

메타데이터는 자료의 제목·작성자·주제처럼 자료를 설명하는 데이터이다. 메타데이터의 인코딩은 이러한 항목과 값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① O: HTML에서는 문서의 head 영역에 있는 **meta 요소** 등을 이용하여 작성자·설명·키워드와 같은 메타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웹페이지 안에 그 페이지를 설명하는 정보를 넣는 방식이다.

② O: XML은 **요소와 속성으로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마크업 언어이다. 제목이나 작성자 같은 메타데이터 항목과 값을 XML 요소·속성으로 표현하여 저장하고 교환할 수 있다.

③ O: RDF는 자원에 관한 정보를 **주어·술어·목적어의 세 요소**로 표현하는 모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책의 작성자는 김○○이다'를 책·작성자 관계·김○○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RDF/XML 등의 구문으로 인코딩할 수 있다.

④ X: EPUB은 전자책 등 디지털 출판물의 본문·이미지·스타일·메타데이터를 함께 묶는 **전자출판물 배포·교환 형식**이다. EPUB 내부의 메타데이터는 XML 기반 패키지 문서 등에 기술되며, EPUB 자체가 메타데이터 인코딩 방식인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15. 다음 질의문으로 대량의 동일한 문헌집단에서 문헌을 검색하려고 한다. 검색결과가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Information AND Technology
ㄴ. Information OR Technology
ㄷ. Information ADJ Technology
ㄹ. Information NEAR Technology

① ㄴ → ㄱ → ㄹ → ㄷ
② ㄴ → ㄷ → ㄱ → ㄹ
③ ㄹ → ㄴ → ㄷ → ㄱ
④ ㄹ → ㄷ → ㄴ → ㄱ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OR는 두 검색어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면 검색하지만, AND는 둘 다 포함해야 한다. NEAR는 여기에 거리 제한을 더하고, ADJ는 **입력한 순서대로 바로 이웃**해야 하므로 검색 범위가 더욱 좁아진다.

**올바른 순서**

ㄴ → ㄱ → ㄹ → ㄷ

ㄴ. Information OR Technology: Information이나 Technology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문헌을 검색한다. 어느 한 단어만 있는 문헌과 두 단어가 모두 있는 문헌을 포함하므로 **검색 범위가 가장 넓다**.

ㄱ. Information AND Technology: 두 단어를 **모두 포함**하는 문헌을 검색한다. 두 단어의 순서나 거리는 제한하지 않는다. OR의 검색결과 중 어느 한 단어만 있는 문헌을 제외하므로 OR보다 범위가 좁다.

ㄹ. Information NEAR Technology: 두 단어가 함께 나타나되 **일정한 거리 이내**에 있어야 한다. 두 단어가 문헌의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만 있는 경우는 제외되므로, 거리 제한이 없는 AND보다 범위가 좁다.

ㄷ. Information ADJ Technology: 두 단어가 **입력한 순서대로 바로 이웃**해야 한다. 예를 들어 'Information Technology'처럼 붙어 있어야 하며, 두 단어 사이에 다른 단어가 끼어 있으면 이 인접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일정 거리 안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도 허용하는 NEAR보다 조건이 엄격하므로 검색 범위가 가장 좁다.

NoteBase

**문 16. 정보검색에서 '가중치 탐색(weighted search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중치 탐색은 이용자가 질의에 포함된 각 용어의 중요도를 표시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② 가중치는 각 정보검색시스템이 정의한 기호나 숫자로 표시될 수 있다.

③ 가중치 척도는 각 정보검색시스템에서 동일하게 규정된다.

④ 가중치 할당 기준으로는 용어위치, 용어근접성, 역문헌빈도 등이 사용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각 정보검색시스템에서 동일하게 규정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가중치는 용어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지만, 이를 표현하는 **척도와 값의 범위는 시스템마다 다를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중치 탐색은 검색어에 서로 다른 중요도를 부여하여 검색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질의에 포함된 용어 중 **더 중요하게 다룰 용어**에 높은 가중치를 줄 수 있다.

② O: 가중치는 시스템이 정한 **기호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이용자가 중요도를 지정하면 시스템은 정해진 표기 규칙에 따라 이를 해석하여 검색에 반영한다.

③ X: 가중치 척도는 모든 정보검색시스템에 공통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시스템의 설계에 따라 사용하는 척도와 허용하는 값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규정된다'를 **'시스템마다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용어위치·용어근접성·역문헌빈도**는 가중치 할당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용어위치는 제목이나 본문 등 용어가 나타난 부분을, 용어근접성은 검색어들이 서로 얼마나 가까이 나타나는지를 고려한다. 역문헌빈도는 전체 문헌 집합에서 해당 용어를 포함한 문헌이 적을수록 그 용어의 식별력이 크다고 보아 높은 가중치를 주는 기준이다.

NoteBase

**문 17. 전자자원의 공동구매 사업(컨소시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KESLI(Korean Electronic Site License Initiative)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전자자원의 공동구매 사업이다.

② NESLI(National Electronic Site License Initiative)는 영국의 전자자원 공동구매 사업이다.

③ 전자자원의 공동구매 사업은 참여기관의 구입/구독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④ 참여기관은 기존 장서나 자원을 공유하여 자원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KESLI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추진하는 전자자원 공동구매 컨소시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KESLI의 주관기관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다. 여러 도서관과 연구기관 등이 전자학술정보를 효율적으로 구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한다'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

② O: NESLI는 **영국의 전자자원 공동구매 사업**이다. 영국의 고등교육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통해 전자학술지를 구독하도록 하며, JISC의 지원 아래 출판사와 이용허락 조건 등을 공동으로 협상하였다.

③ O: 여러 기관의 구매 수요를 모으면 개별 기관이 따로 계약할 때보다 **가격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할인 등 유리한 구입·구독 조건을 확보하고, 기관별 협상과 계약에 드는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다.

④ O: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자원 공유를 통해 각 기관이 단독으로 보유하거나 구독하는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다만 전자자원의 공동 이용은 **계약과 이용허락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이루어지며, 참여만으로 모든 자원을 제한 없이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18. 정보서비스를 위한 장서관리 활동을 계획·실행·평가단계로 구분할 경우, 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협력 장서개발

② 장서개발정책 수립과 유지

③ 자금 확보와 예산 관리

④ 지역사회분석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협력 장서개발은 여러 도서관이 자료의 수집을 분담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실행단계**의 활동이다. 장서관리의 방향과 기준,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는 계획단계와 구별한다.

**공통 해설**

장서관리의 계획단계는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활동의 기준과 자원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지역사회분석은 어떤 이용자에게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일이고, 장서개발정책 수립과 유지는 자료를 선택·수집·관리할 원칙을 정하고 유지하는 일이다. 자금 확보와 예산 관리는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배분하는 일이므로, 세 업무 모두 계획단계에 속한다.

협력 장서개발은 도서관들이 협력하여 자료를 분담 수집하거나 공동으로 확보하는 활동이다. 이 문항의 단계 구분에서는 마련된 방침을 바탕으로 **실제 장서를 개발하는 실행단계**에 속한다. 협력의 원칙을 장서개발정책에 담는 일과 협력 장서개발 자체를 수행하는 일을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문 19. 디지털 지적문화유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보존하여 활용하도록 국립중앙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디지털자원의 수집 및 보존 프로젝트는?**

① Greenstone
② OASIS
③ KOASAS
④ DSpace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OASIS**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디지털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보존하여 후대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자원 아카이빙 사업이다.

**공통 해설**

OASIS는 '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의 약자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디지털자원 수집·보존 프로젝트이다.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디지털 지적문화유산으로 수집·보존하여 후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항의 '국립중앙도서관이 추진'한다는 주체와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지적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한다는 목적이 **OASIS의 사업 성격**에 해당한다. 이 주체와 목적의 대응을 기준으로 프로젝트 명칭을 식별한다.

NoteBase

**문 20. 정보활용과정 모형인 Big6 Skills 모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적인 프레임웍은 6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단계에는 2개씩의 하위 단계가 있다.

② 다양한 계층의 정보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처리과정 모형이다.

③ 통합정리 단계에서는 최적의 정보원을 선택하고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④ 교사와 미디어 전문 사서가 협동하여 학생들에게 정보와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가르치는 방법론이기도 하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통합정리는 여러 정보원에서 얻은 정보를 **조직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최적의 정보원을 선택하는 것은 '정보탐색전략',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정보이용' 단계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Big6는 과제 정의, 정보탐색전략, 정보소재 파악 및 접근, 정보이용, 통합정리, 평가의 **6단계이며 각 단계에 2개의 하위 단계**가 있다. 예를 들어 과제 정의 단계에서는 정보문제를 정의하고 그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다.

② O: Big6는 **연령이나 학년, 특정 교과에 한정되지 않는** 정보문제 해결과정 모형이다. 학습 과제뿐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정보를 찾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③ X: 통합정리 단계에서는 여러 정보원에서 얻은 정보를 **조직하고 결과를 제시**한다. 최적의 정보원을 선택하는 것은 2단계인 '정보탐색전략'의 활동이며,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4단계인 '정보이용'의 활동이다. 따라서 선지는 서로 다른 단계의 활동을 통합정리의 활동으로 잘못 설명하였다.

④ O: Big6는 정보문제 해결을 위한 모형이면서 **정보활용능력과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가르치는 방법론**이기도 하다. 교사와 미디어 전문 사서가 협력하여 수업 과제에 정보원 탐색·이용과 기술 활용을 통합해 지도할 수 있다.

NoteBase